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강성대국' 원년을 선포한 2012년을 불과 12일 앞둔 17일 6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한국정부와 미국은 물론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들은 비상사태에 돌입하며 김 위원장의 사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역에서 중국의 지도간부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 hk7048

김정일 급성 심근경색…벼락처럼 가다

"17일 열차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쇼크 구급치료했지만 오전 8시30분에 사망"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19일 정오 '중대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30분 급병으로 열차 안에서 사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김일성 주석 사후 1998년 국방위원장에 오르며 '김정일 시대'를 연 지 13년, 1974년 후계자로 공식화된 지 37년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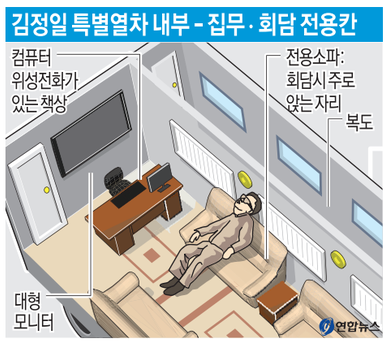
북한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의 병과 서거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서'에서 "17일 야전열차 안에서 중증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됐다. 발병 즉시 모든 구급치료대책을 세웠으나 17일 8시30분에 서거하셨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은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에서 "아무 동요 없이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국민에게 당부했다.

북한은 김정은을 포함해 232명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김 위원장의 시신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하고 28일 평양에서 영결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영화 예능광…공식 석상선 소탈

원로배우 최은희가 본 김정일



원로배우 최은희(85·사진)는 타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19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난 최은희는 건강이 좋지 않아 휠체어에 의지한 모습이었다.

"제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치밀지만 일단 세상을 떠났으니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납치 자체는 분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희를 매우 잘 대해주긴 했습니다."

1950~1970년대 영화배우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최은희는 1978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홍콩에서 납치됐다. 이후 북한에서 '탈출기(1984)', '소금(1985)', '심청전(1985)' 등 5편의 영화를 찍었다.

그는 "김정일이 직접 납치를 지시했다"며 일이 성사되자 "개선장군처럼 좋아했다"고 회고했다. "(김 위원장은) 신상옥 감독과 우리의 예술적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영화광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영화를 좋아하고 우리의 예술적 가치를 평가해 주었습니다. 모든 예능계통에 관심이 있었어요. 신 감독이 기획하면 무조건 찬성을 해줬어요."

김 위원장의 지시로 남편(신상옥 감독)과 함께 신필름영화촬영소를 설립한 최은희는 '돌아오지 않는 밀사(1984)', '사랑 사랑, 내 사랑(1984)', '철길을 따라 천만리(1984)', '불가사리(1985)' 등을 제작했다.

"외국에 내보내도 좋다고 해서 국제영화제에도 출품했어요. 체코슬로바키아영화제, 모스크바에도 내보냈는데, 양쪽에 가서 상을 타자, 입이 이만하게 커져서 좋아하더군요."

최은희는 "김 위원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초대를 했고, 1년에 한두 번은 특별행사에 초대했다. 공식석상에서 만나서 자세한 걸 알 수 없지만, 인간미 있고 소탈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김위원장은 항상 예우를 갖추고 깍듯이 해줬지만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 탈출했다"고 그는 말했다. 연합뉴스

美 포브스 "김정일 올해 사망" 족집게 예언

지난해 9월 특집기사로 다뤄



김정일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앞서 이를 예측한 각종 예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9월 12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인터넷판을 통해 '미래로부터 온 뉴스'라는 특집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는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70세로 사망하고 아들 김정은이 29세로 권력을 세습한 뒤 미국과의 교역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브스는 이 뉴스를 내보내며 엄격한 기준을 정해 미래 예측을 시도했고 실제 데이터와 예사실, 과학적 상상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이 기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퍼 나르고 있다. 대부분 올해라고 정확하게 예언했다는데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정확히 예측했던 역술가 김정섭씨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2010년 이후 김정일이 북한을 다스리기 힘들다'고 말했던 그의 예언은 현재 트위터에서 리트윗 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을 알리기 전 특별방송을 예고한 기사의 한 댓글에는 2000개가 넘는 또 다른 댓글이 달렸다. 2000개의 댓글이 달린 기사 댓글은 예고방송에 대해 "'김정일 동지께서 오늘 아침에 사망하셨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시 "버릇없는 아이"…아베 "논리적인 지도자"

외국 지도자들이 본 김정일

국제사회에서 폐쇄된 국가의 은둔형 독재자로 통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과연 외국 지도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쳐졌을까.

김 위원장에 대해 가장 날카로운 공격과 독설을 퍼부은 지도자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5월 김 위원장을 '피그미족(아프리카의 단신 부족의 명칭으로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음)'이라 부르는가 하면 '버릇없는 아이'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실패한 지도자'(2003년 10월) '폭군'(2005년 4월), '위험한 사람'(2005년 4월) 등 부시의 김정일 비난 어록은 2006년 중간선거 패배 이후 대화 기조로 정책을 선회할 때까지 계속됐다.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무부의 외교전문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는 "김 위원장은 과찬을 갈구하는 무기력한 늙은이"라며 "김 위원장이 다시 뇌졸중을 맞는 것은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등 김 위원장을 실제로 만난 외국 지도자 일부는 그가 괴팍하고 도착적인 독재자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인물이라고 평했다. 푸틴 대통령은 2005년 5월 김 위원장에 대해 "김 위원장을 세 번 만났는데 그는 조국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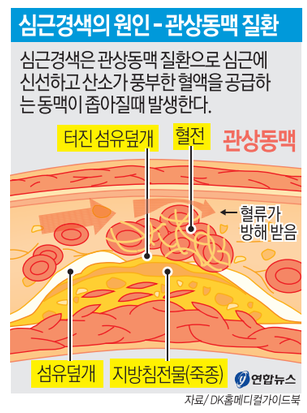
아베 전 총리는 2002년 김 위원장을 만난 경험을 떠올리며 "나는 그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방북한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기이하지만 지적이고 박식하다" 평가했다. 연합뉴스



심장 근육에 혈액공급 중단돼 사망

김정일 사인 '급성 심근경색증'은 어떤 병?



자료/ DK홈메디컬가이드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다. 열차 안에서 사망한 점으로 비춰보면 뇌졸중에 의한 후유증보다는 급성심근경색과 심실세동(부정맥)이 함께 발병한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에 혈액공급이 중단돼 심근 세포가 죽는 질환이다. 관동맥 또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심근 일부분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서 심근이 죽게 되는 질병이다. 증상은 앞가슴의 극심한 통증이다. 통증은 앞니부터 배꼽까지 어디든 올 수 있다. 가끔은 왼쪽 팔이나 양쪽 팔로 뻗치기도 한다. 심한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심근경색증은 성인병 중 하나인 동맥경화증에서 출발한다. 혈관에 기름이 끼면 혈관이 좁아지고 좁아진 동맥경화관이 터지면 혈소판 찌꺼기가 혈관을 막게 된다. 결국 심근에 피가 통하지 않고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AFP "김정은이 승계…北 더 위험"

주요 외신들의 北 후계 구도 전망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긴급 소식으로 전했다. 향후 북한의 후계 구도를 분석하는 기사도 쏟아져 나왔다.

대다수 외신들은 북한 내부가 극도의 불안정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dpa는 "김 위원장의 죽음으로 한국 및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앞으로 관계가 불투명해졌다"고 분석했다. 향후 후계 구도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인물은 3남인 김정은. 올해 29세인 그는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되고 2010년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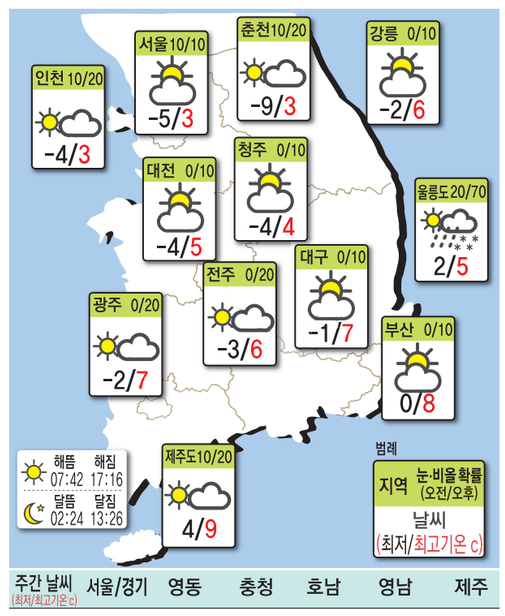
외신들은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김정은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권력을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AFP 통신도 "김정은이 군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려고 함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BBC는 과거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을 인용해 김정은이 "(북한의) 키를 잡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도 김정은이 "아버지보다 더욱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고 전하며 지도자로서의 경험 미숙을 지적했다.

오늘의 날씨

12월 20일 화요일 (음력 11월 26일)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c)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21일(수)	-2/2	-6/2	-3/3	-1/7	-1/8	6/10
22일(목)	-6/-4	-7/-4	-4/-1	0/3	-3/5	4/5
23일(금)	-10/-4	-13/-3	-8/-2	-5/0	-7/3	2/4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발행인 편집인 송대근
인쇄인 최맹호
편집국장 이성춘
광고국장 이승욱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9
스포츠1부 02 2020 1052
스포츠2부 02 2020 1051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1
사진부 02 2020 1068
(우)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